

# 흥겨운 고고장구 장단으로 하나 된 완주

완주문화재단, '완주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 5000여명 찾아 성황리 개최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1일 완주군 둔산공원 일원에서 '2026 완주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완주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의 일환으로 한국 고유의 타악기인 고고장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완주 산업단지 근로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체형 전통문화 행사로 기획됐다. 완주 13개 읍·면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생활문화 축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민속놀이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 참여형 문화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완주 관내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화산면 등 9개 읍·면에서 총 14개 팀, 159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한 '고고장구&난타 경연'은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생활문화 동호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든 무대는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문화 화합의 장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어린이 공연을 시작으로 고고장구 예선전, 풍류학교(온누리예술단) 공연, 완주산업단지 근로자 가요제 시상식 공연(김백희/박형주), 고고장구·난타 통합 공연, 시상식 및 폐회식 등이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완주군어린이집연합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한 떡거리 부스와 전통 체험부스, 플라마켓 등이 운영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난 1일 완주군 둔산공원 일원에서 '2026 완주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00여 명의 군민과 방문객이 찾아 둔산공원을 가득 메우며 지역 생활문화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주민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되면서 완주 공동체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협동조합 민경강사람들 이은숙 이사장은 "고고장구는 창시자인 조승현 단장으로 부터 완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구이면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문화 수업과 지역 행사를 통해 확산되어 왔다"며 "현재 완주 13개 읍·면과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의 주민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고장구는 한국 전통 타악기인 장구 연주에 현대적인 트로트 리듬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공연문화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생활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문화재단 정철우 상임이사는 "이번 페스티벌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완주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상생형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열재복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33)

## 빨리 가라고!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갈려면 지금이 좋을 거야. 대원들이 다 모이면....."

명희는 말을 끝맺지 않고 남준 곁에서 일어났다. 남준은 한동안 일어설 줄 몰랐다. 무기력이 찾아와 남준을 꽉 묶었다.

차라리 남아서 유격대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명희에게 속죄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남준!"  
누군가 남준을 불렀다. 남준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봤다. 박창수가 다른 대원 한 명과 함께 다가왔다.

"허튼짓은 하지 마. 도망가려고 여기 혼자 있는 건 아니지? 흐흐흐"

박창수는 장총을 남준에게 겨누었다. 여차하면 쏠버리겠다는 건가.

박창수를 대면하자 물어보고 싶었다. 네가 어떻게 내가 강용대 증대장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지?

"아니야. 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박창수의 뒤에서 명희가 모습을 들어냈다.

"어? 그래?"  
"잠깐 자리좀 비켜주면 안 될까?"

"알았어....."

박창수는 때때로 표정을 지으며 남준과 명희 곁에서 물러났다. 명희는 박창수와 다른 대원이 멀어지는 걸 잠시 지켜봤다.

"얼른 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얼른!"  
명희는 남준을 재촉했다.

"너는?"  
"빨리 가라고!"

명희는 곧 울 것처럼 목소리를 작게 쥐어 짜며 재촉했다.

남준은 때때로 몸을 일으켜 산 아래로 내달렸다. 남준은 명희가 쓴 총알이었다.

명희가 방아쇠를 당긴 방향으로 남준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허공을 날아가듯 의지와 상관없이 숲속을 달렸다. 심장은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뛰었고 숨은 곧 사망선고를 할 것처럼 가졌다.

팔과 얼굴이 나뭇가지와 풀순에 쓸렸고 따가웠지만 달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 개활지까지 쉬지 않고 달렸고 민가 마을까지 내려왔다.

남준은 눈두렁에 아무렇게나 드러누웠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한동안 호흡을 가다듬었다. 호흡을 되찾은 남준에게 공허가 밀려왔다.

남준 곁에 아무도 없었다. 들녘에서는 참새들이 저들끼리 모여서 지저귀고 나무와 잡초들은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평화롭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만 넓은 이 벌판에 혼자 떨어져 있었다. 외롭고 쓸쓸했고 무엇보다도 몹시 허기가 졌다.

어디로 가야 하나. 학교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군경을 향해 총을 쏘던 남준이다. 군경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양심상 할 수 없는 짓이다.

봉림으로 갈까? 누구에게로 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뉘를 할까.

# 남원 춘향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열린다

5월 2~3일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 개최...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남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인 제96회 춘향제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 축제의 주인공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기간 중인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를 개최, 전국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댄스팀(3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참자·스트릿·합합 등) △K-POP 커버 댄스경연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24일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남원시청 또는 남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댄스 영상과 함께 이메일(namwon3363@naver.com)로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예선을 통해 부문별로 각 12팀의 분선 진출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본선에서 최종 선정된 부문별 상위 3팀에게는 활동지원비를 포함 총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및 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역사박물관, 3~6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수제간식·방향제·댕기머리곤 만들기 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진안군은 운영하는 진안역사박물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3~6월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지역의 공방이나 문화예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해 문화

예술과 전통 자원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3월 25일(수) 수제간식 만들기, 4월 29일(수) 방향제 만들기, 5월 27일(수)과 6월 24일(수) 댕기머리곤 만들기(바느질 체험, 2회 통합과정)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안군민 누구나 전화(063-430-8085)로 접수 가능하고, 프로그램당 선착순 16명으로 모집한다. 운영시간 및 장소는 해당일 오후 7시 진안역사박물관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역사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박물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풍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